

표 2-64. ‘홍로’ 사과의 규격 및 에틸렌 제어제 처리에 따른 저장 중 중량 감모율의 변화(2016).

과실크기 (g)	처리 ^z	중량 감모율 (%)				
		저장기간				
		0	30	60	90	120
240~270	무처리	0.0	0.8 a ^y	1.4 ab	2.0 ab	2.3 ab
	스마트프레쉬	0.0	0.7 a	1.1 b	1.6 b	1.9 b
271~300	무처리	0.0	0.7 a	1.3 ab	1.9 ab	2.3 ab
	스마트프레쉬	0.0	0.8 a	1.7 a	2.2 a	2.7 a

^z스마트프레쉬: 훈증처리용 1-MCP

^y던컨다중검정, $p = 0.05$.

저장기간동안 ‘감홍’ 사과의 규격 및 PE필름 처리에 따른 중량 감모율을 보면(표 2-65, 2-66),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모든처리구에서 과실의 중량이 감소하였으며, 저장 180일 후 300~340g 처리구의 경우 1.8~2.2%가 감소하여 381~420g 처리구 1.7~1.8%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중량 감모율을 보였다. PE필름 처리간 중량 감모율은 저장 180일 후 무처리구가 1.8~2.2% 감소하였지만 PE필름 처리구는 1.7~1.9% 감소하여 필름 처리구의 감모율이 다소 적은 경향이였다. 2015년도 역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모든 처리구에서 과실의 중량이 감소하였으며, 특히 PE필름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경우 저장 180일 후 4.7~5.0%가 감소하여 PE필름 처리구 0.7~2.2%와 비교해 과실중량이 현저히 많이 감소하였다. 과실 규격간 중량 감모율은 저장 기간동안 처리간 미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. 2016년 ‘감홍’ 사과의 규격 및 PE필름 처리에 따른 중량 감모율을 보면(표 2-67), 현재 90일차까지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저장 90일 후 PE필름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경우 2.8~3.3%의 중량 감모율을 보였지만 PE필름 처리구의 경우 0.4~0.9%가 감소하여 무처리구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감소를 보였다. 따라서 당해 역시 예년과 동일하게 PE필름 처리구의 중량 감모율이 적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.